

비전



Contents

Story

- 04 테마스토리 Vision : SRC재활병원 김형빈 진료부장
- 08 드림인터뷰 복지행정의 전문가 정무성 부총장이 말하는 진정한 복지사회 : SRC 장석훈 기자
- 12 드림피플 그 어떤 장애도 배움의 열정은 꺾을 수 없는 최승집 교장 : SRC새롬학교 박은재 선생

Issue N News

- 15 의료컬럼 선천성 근성 사경 : SRC재활병원 조수경 과장
- 16 교육컬럼 희망을 품은 교육 :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김지영 사원
- 18 SRC NEWS SRC 주요소식 : SRC기획홍보실 안현혜 사원
- 22 송년회후기 Adieu 2013 Start up 2014 : SRC기획홍보실 최오현 대리

후 원

- 26 나눔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 SRC 장석훈 기자
- 28 동행 온기로 가득한 SRC의 겨울나기 : SRC 장석훈 기자
- 30 자립 멀지 않은 자립의 꿈, Dream! : SRC보듬터 노정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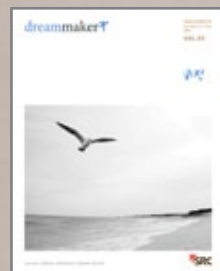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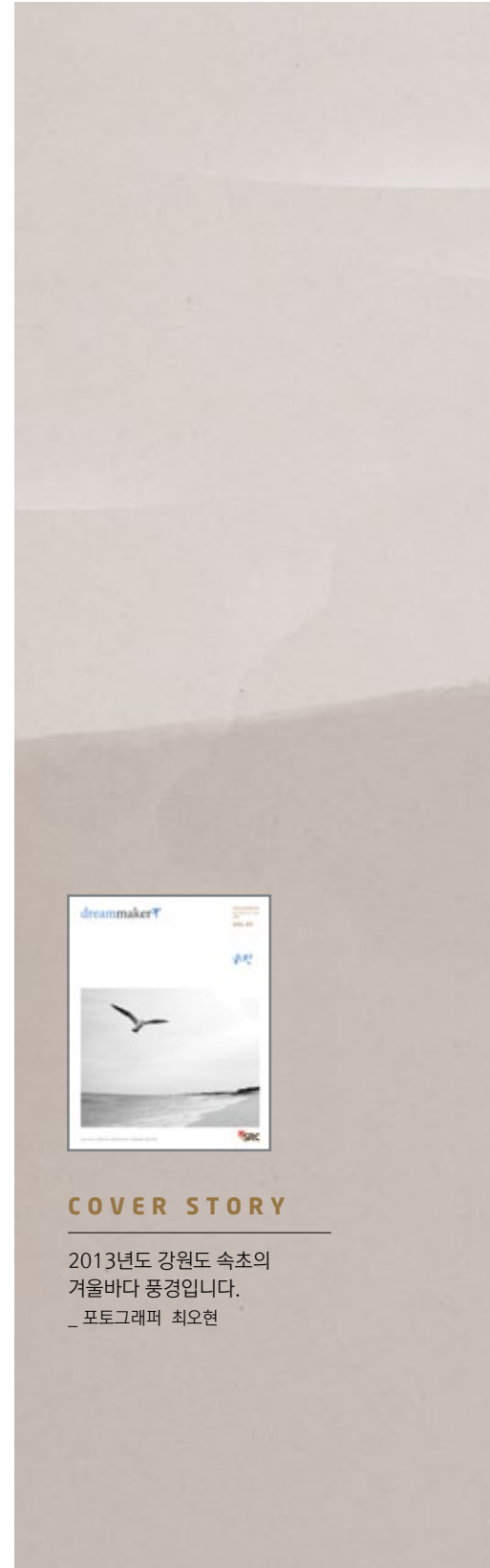
참 여

- 32 포토타고리 tea와 사랑에 빠지다 : SRC 한상원 기자
- 34 구독자 참여 BIKE LIFE : SRC기획홍보실 민병훈 팀장
- 36 함께하는 SRC GO! SRC FC!! : SRC재활병원 김영한 사원

dreammaker는 여러분의 좋은 글을 기고 받습니다.
보내주신 원고는 다음 호에 기재되며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발행일 2014년 2월 17일
 창간일 2012년 12월 1일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SRC
 발행인 민오식
 편집 SRC기획홍보실
 총괄기획 민병일
 원고취재 최오현, 안현혜, 노정균, 장석훈, 한상원
 주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수길 25 사회복지법인SRC 기획홍보실
 문의전화 031-760-6341~5 (구독신청)
 팩스 031-760-3624
 홈페이지 메인 www.srcdream.com 후원 www.givedreams.or.kr
 디자인·인쇄 디노디자인 www.denodesign.co.kr

본지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이나 내용은 SRC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COVER STORY

2013년도 강원도 속초의
겨울바다 풍경입니다.
_ 포토그래퍼 최오현

Main Theme

비전

Vision [viʒn]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 '이상', '전망'

What this power is I cannot say. All I know is that it exists and it becomes available only when a man is in that state of mind in which he knows exactly what he wants and is fully determined not to quit until he finds it.

이 힘이 무엇인지 나는 정의할 수 없다.
내가 아는 것은 이 힘은 꿈을 정확히 알고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자에게만 존재한다는 것뿐이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

일러스트 Andsomo



Andsomo.



Vision

비전

요새 우리나라나 중국 등 신흥국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경우 스마트폰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며 2013년 12월 2일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여 150만원까지 추가가 치솟았으나,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에 한달만에 15%이상 주가가 폭락한 바 있다. 이런 주가의 변동에 대해 전문가들은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경쟁력의 훼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성이 한계에 봉착하였기 때문이라고도 말한다. 해당 기업 혹은 국가의 향후 전망이 변할 때 주가로 대변되는 현재 해당 조직의 경제적 가치도 변화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용한 투자를 일반적으로 '가치 투자'라 부르며, 여기서의 향후 전망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우리가 흔히 쓰는 '비전(Vision)'이다.

가치투자, 향후 전망 비전(Vision)

- 개인 혹은 조직이 어떠한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최우선으로 설정해야 할 것은 목표(goal)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본은 한정되어 있기에, 이 유한자원을 통해서 최대한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얇고 넓은 접근이 아닌 목표를 향한 집중적 접근, 즉 투자의 효율성을 생각해야 한다. 이는 재활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환자마다 개별화된 단기 및 장기치료목표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구난방으로 치료가 진행된다면 그 환자의 기능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게 만들기에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한 환자의 주치의가 되는 순간부터 치료목표 설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그리고 치료목표를 합당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 환자의 질환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상태를 모두 파악해야 하고, 향후 예측되는 장애 상태 및 그로 인한 그 환자의 생활의 변화까지도 통찰할 필요가 있다. 즉 그 환자의 비전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재활치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개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내 수입을 어떤 형태로 지출할지 매 순간 결정해야만 한다. 이때 본인의 인생에 대한,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그에 따른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더 효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조직도 마찬가지다. 작은 규모의 기업부터 한 나라까지 모두 주어진 시간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한다. 이를 위해서는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또 목표를 합당하게 설정하기 위해서는 비전을 통찰해야 한다. 세계 각국에서, 그리고 국내의 경우 삼성, LG 등 대기업들이 경제연구소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비전의 통찰을 위해서인 것이다.





“
 소외계층을 위한
 세계 속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글로벌 복지 리더
 ”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비전은 어떠한가?

- 우리나라에서 60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중은 1970년 5.1%에서 2010년 13.7%까지 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약 19.5%, 2030년에는 약 24.3%, 2050년에는 약 37.4%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출산율의 경우 1970년 4.53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05년 1.0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2012년에는 1.30명으로 미미하게 상승한 상태이다. 그리고 현재 국내로의 이민자와 외국인 장기 체류자는 전체 인구의 2.5% 수준이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향후 출산율의 급격한 상승이나 외국인 이민자의 급격한 유입이 일어나지 않는 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추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비중은 일본의 장기불황 시작 시기인 1990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 일본 인구의 노령화는 급격히 진행되어 201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9.5%까지 상승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일본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0~2%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경제 성장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 추세대로라면 향후 경제성장률에 대한 비전은 어두운 상태라 할 수 있겠다.

반면, 우리나라 복지 예산의 경우 전체 예산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 26.2%, 2010년 27.7%, 2011년 28%, 2012년 28.5%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GDP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8~9%수준으로 미국 14.8%, 일본 16.9%, 덴마크 29.2%의 수준에 비추어 아직 매우 적은 비율을 보이기에 향후 인구 노령화로 인한 사회적 복지수요 증대 및 남북 긴장 완화와 더불어 복지예산의 비율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국내 사회 환경 속에서 SRC의 비전은 무엇일까?

● 지난 2013년 중무식에서 SRC의 민오식 이사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글로벌 복지 리더' 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전쟁 때부터 이어온 우리 기관의 사회복지를 위한 노력을 우리나라의 비전에 발맞추어 더 한층 강화하고 국가나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SRC만의 복지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함이다. 또한 국내를 넘어서 복지서비스를 향유하기 어려운 여러

나라의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들을 이끌어 나가 세계 속에서 복지 리더로 자리 매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SRC는 현재의 장애인 복지사업과 더불어 세계 장애어린이를 위한 글로벌 후원사업 GIVE DREAMS, 희귀난치병 환자를 위한 재활서비스,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을 위한 자립체험휴과 장애인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시대변화에 따른 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대응, 예측하기 위한 복지연구소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SRC에 속한 우리 SRC재활병원은 통합적 재활을 추구하는 세계적 재활전문병원을 그 비전으로 하고 있다. 1961년 국내 최초로 재활병원 개원 이래 지속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해온 우리 기관은 그 역사와 전통을 밑바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원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 출신의 우수한 전문의들로 의료진을 구성하여 재활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였고, 일반 재활병원, 요양병원들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중증환자, 호흡장애환자, 희귀난치병환자 등을 위한 재활치료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재활치료의 영역을 넓혔으며, 국내 환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우수한 재활치료를 원하는 환자분들을 위하여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급성기 재활치료 이후 요양 및 만성기 재활치료 서비스를 위하여 별도의 재활요양병원을 신설하여 급성기부터 만성기까지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통합적 재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기존 컨퍼런스 및 세미나와 별도로 현재 우리나라 재활의학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여러 저명한 교수님들을 초빙하여 의료진과 치료진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주민들의 통재 재활에 대한 지속적 수요증대를 감안하여 두 개 진료실을 상시 운영하고 토요일에도 외래 진료를 시작하여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놓치지 않고자 한다.

우리의 이런 비전과 이에 따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조직 역량의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조직 구성원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향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구성원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조직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개인의 행복이 조직의 발전,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계 복지의 발전으로 연결되어 진정한 글로벌 복지리더 SRC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글 SRC재활병원 김형빈 진료부장

약력 | SRC재활병원 김형빈 진료부장 약력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졸업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료
- SRC재활병원 재활의학과 진료부장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외래교수
-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전문위원
- 이천 장애인 체육종합훈련원 촉탁의 겸임
- 대한 스포츠의학회 장애인 스포츠 분과의원



복지행정의 전문가 정무성 부총장이 말하는 진정한 복지사회

약력

학력

미국 시카고대학교 대학원 복지행정학 박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송실대학교 영문학 학사

주요 경력

前 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회장

現 복지부 전국사회복지시설평가단장
국무총리실 자원봉사진흥위원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
송실사이버대학교 부총장

주요 연구분야

복지행정, 민간자원개발,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Q

SRC

교수님께서 사회복지학을 선택하시게 된 계기와 발자취를 알고 싶습니다.

A

정무성 교수

저는 영문학과 77학번 출신입니다. 그때는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었고 민주화 운동과 함께 시대적으로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당시 서울은 지금과 많이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곳곳에는 '산동네'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산동네에는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이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곤 했습니다. 대학생이던 저는 그런 아이들을 돕기 위해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아 공부방을 시작하였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 아이들의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회복지를 위한 일을 평생직으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은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조직을 운영하는 행정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복지행정학 박사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사회복지행정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CSR(기업사회공헌)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업사회공헌의 붐을 일으켰다는 개인적인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SRC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정무성 교수

국내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중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학과 중의 하나로서 대학원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본교 교육이념은 진리와 봉사인데 그중에 봉사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학입니다. 때문에 주요 학과로 성장하기까지 처음부터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학과는 응용학문이기도 하지만 실재론 학문만큼이나 현장 중심의 가르침을 강조를 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때문에 본교 출신들이 국내 현장에 가장 많이 포진하고 있으며 상당수가 지도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교수진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교류를 하는 교수진들이 주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숭실사이버대학이 출범하여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사회복지학의 다양한 분야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SRC

사회복지관련 학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무성 교수

사회복지를 막연히 '좋은 일'하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의 경우 대개 학부에서 기초 학문을 탄탄히 마친 후에 배우는 학문이 사회복지입니다. 이유는 인간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가 다방면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회복지를 단순히 남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SRC

2014년 국가복지예산이 100조원 시대로
돌입했습니다. 복지예산 100조원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순환
구조에 있어서 '성장'과 '복지' 무엇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성 교수

2014년 국가복지예산 100조라는 수치는 고용비용까지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즉 순수사회복지의 예산은 이에 훨씬 못 미칩니다. 최근 OECD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사회보장비용은 최하위입니다. 소위 선진복지국가라는 룩셈부르크,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우 GDP 대비 사회보장비용비율이 40%가 넘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1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GDP 규모는 커가고 있는 반면에 사회보장비용의 비중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2009년의 통계만 하더라도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였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최하위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성장과 복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복지에 투자하는 것이 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예로 40% 이상을 복지예산에 투입하는 스웨덴, 덴마크, 독일 등의 나라들은 아시아시퍼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탄탄한 나라들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복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가 뒷받침 되지 않은 성장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SRC

사회복지혜택을 분배하는 방식에 있어서
'선별주의'나 '보편주의'냐에 따른 논의가
많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사회에서는 어떠한
입장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무성 교수

과거 농경사회의 복지개념이란 민간차원에서 필요시 선별적으로 도와주면 되는 수준이기에 보편주의보다 선별주의가 맞습니다. 반대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이웃공동체가 무너지고 도시화가 되어가는 상황에서 선별주의보다 다수의 혜택을 위한 보편주의 쪽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복지혜택에 따라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진행해야 할 복지 프로그램이 있고, 선별주의에 의해 진행해야 할 복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나누기 이전에 복지정책의 내용자체가 너무 허술하고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문제가 됐던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보편주의적 관점에서 진행해서는 안될 정책입니다.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한다는 무리한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복지정책은 상당히 예민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을 갖고 정확한 조사와 연구 없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SRC

사회복지사가 매년 약 7만 명이나
배출되는 현 시대에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무성 교수

아마도 전세계에서 사회복지사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일 것입니다. 올해로 6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회복지사가 지나치게 많이 양성되어 사회복지사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흔히 떠오르는 사회복지사의 이미지는 겨울에 연탄 나르기나 명절에 쌀을 나눠주는 단순히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적 이미지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학교 교육시스템의 변화와 자격증 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전문가 코스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문적인 공부와 기술을 습득하여 스페셜리스트로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기관과 법인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저임금 구조가 아닌 그들의 능력과 역할을 존중하는 현장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SRC

사회복지법인 SRC가 앞으로의 사회복지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무성 교수

SRC는 국내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사회복지 환경의 변화에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의 단순히 도와주기만 하는 저차원적인 복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대상자에게 생계를 위한 원조가 아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복지는 일자리와 연계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자활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복지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복지의 전반적인 방향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SRC 산하 모든 기관들은 현재까지는 잘해오고 있다고 평가되며 앞으로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기관들이 정부 보조금만을 의존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인 수익구조와 콘텐츠를 고민하고 그로인해 발생할 수입을 통해 사업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역시 현재 SRC는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SRC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꾸준히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SRC

드림메이커의 겨울호 테마는 ‘비전’입니다.
사회복지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양성하는
정무성 교수님만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정무성 교수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핵심 주제는 경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있어 복지와 경제는 같은 위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복지에 중사하는 사람들이 자꾸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경제의 종속적인 구조의 의미로 복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복지는 경제와 대등한 위치에서 국가의 정책기조를 함께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통일사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경제보다 오히려 복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사회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분들이 미래의 국가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임해야 합니다.

SRC

저희 드림메이커의 독자는 대부분 장애인과
후원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림메이커
독자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무성 교수

저개발 국가인 경우 사회복지의 주 대상층은 아동입니다. 복지선진국으로 발전해나가면서 대상층은 노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어느 정도 갖춰진 단계가 넘어서면 최종 사회복지의 대상자는 장애인입니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사회로 변화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장애인복지입니다. 이 땅의 장애인들이 사회의 주류에 자연스럽게 합류되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복지사회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SRC와 SRC에 중사하는 모든 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드림메이커를 구독하는 모든 독자분들께도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_ 글 / 사진 SRC 장석훈 기자

앞으로 사회복지의 단순히 도와주기만
하는 저차원적인 복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대상자에게 생계를 위한 원조
가 아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지원해줘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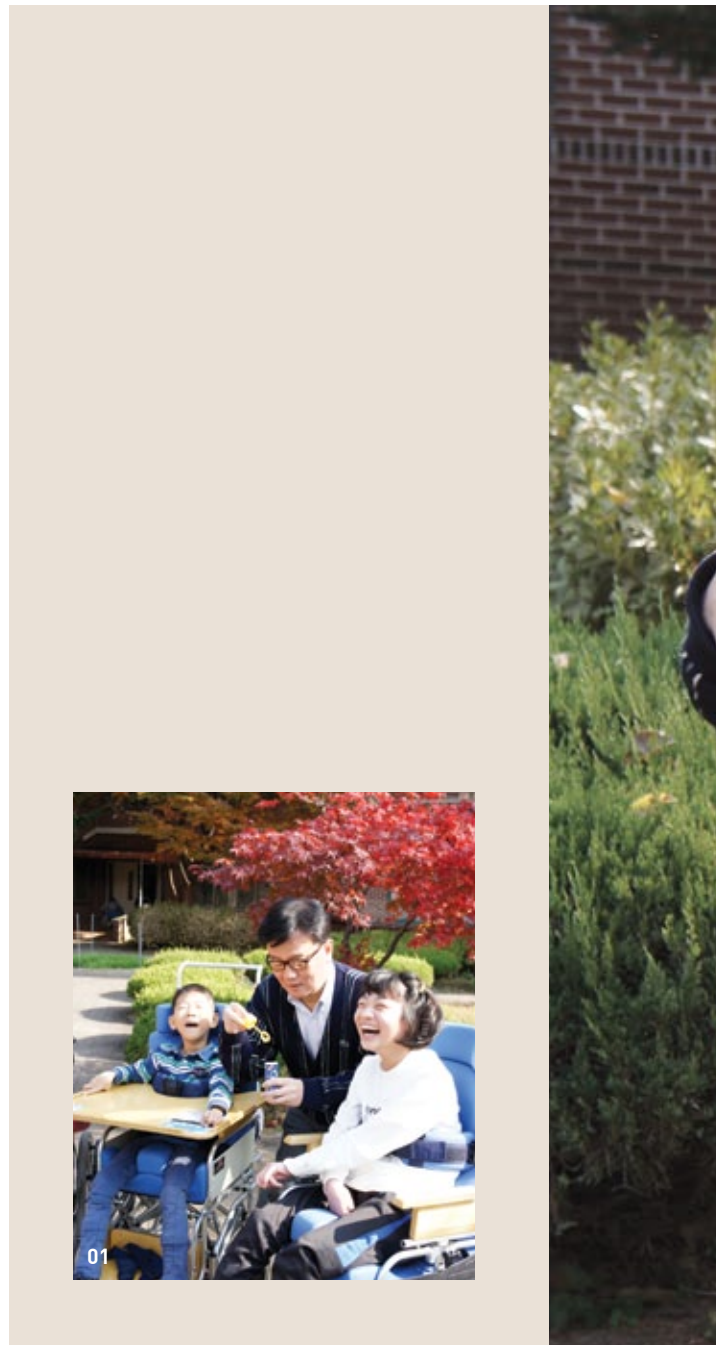


신체적 장애의 한계를 넘어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사랑과
꿈이 가득한 행복의 배움터
새롬학교, 그리고
최승집 교장을 소개합니다.

그 어떤 장애도 배움의 열정은 꺾을 수 없다고 믿는 최승집 교장

지금까지 교육현장의 일선에 서서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에 앞장서온 최승집 교장은 그 누구보다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교 경영을 생각하는 새롬학교의 학교장으로서, 학습 방법 개선을 위해 연구하는 교육가로서, 특수학교 학생 및 특수교사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의 이사로서 현 실정에 맞는 특수교육시설 개발과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부단한 연구 및 활발한 대외활동도 해오고 있습니다.



01

01, 02 SRC 새롬학교 최승집 교장과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02

장애학생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며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경험하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용할 뿐 아니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장애인 재활 및 특수교육 홍보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특히 ‘뇌성마비 쓰기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 집필, 검토, 심의 및 교육과정 검토, 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학습자료를

개발, 특수교육 현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책자 및 CD 등을 전국 특수학교에 보급함으로써 특수교육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가 몸 담아온 새롬학교는

1952년 사회복지법인 삼육아동재활원 설립 인가를 받아 시작된 새롬학교는 1970년에 삼육재활학교로 개교하여 명실상부 지체장애 교육의 선구자



- 01 2013년 사랑나눔 오프로드 캠핑
- 02 2013년 3월 일본 키리가오카 특별지원학교와의 화상수업
- 03 2013년 11월 일본 키리가오카 특별지원학교와의 교류회
- 04 정보화 교육의 일환인 교내 워드프로세서 대회



로서의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해 새롭학교로 학교명을 바꾸고 지체장애 학생들에게 특수교육, 의료재활, 직업교육, 사회 심리적 재활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재활인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승집 교장이 중점을 두고 추진한 교육활동 중 하나인 '사랑나눔 오프로드 캠프'는 2007년부터 매년 1회 실시되고 있으며, 지체장애 학생들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체험활동을 하면서 학교 및 사회생활에 자신감을 갖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승집 교장은 이러한 '오프로드 캠프' 등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 기관과의 연계 예술 교육 활성화로 장애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체 장애 학생들의 개별적이고도 특수한 장애상황을 감안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애 학생들의 성취감 및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체장애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 3월부터 일본 키리가오카 특별지원학교와의 교류수업, 연2회 이상의 화상수업, 미술작품 교류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공동기획 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의 성취감 및 자존감, 타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필독 독서지도, 학생중심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응 훈련, 정보화 교육, 점심 시간에 실시되는 스트레칭 운동, 삼육 갤러리 등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말하는 최승집 교장

**'30년 동안 오로지 한 길만을 바라보며
확고한 신념의 외길 인생을 걸어온 똑심 교사'**

그 결과, '미래의 희망과 꿈을 키워가는 즐거운 학교' 경영이념 아래 최선을 다하는 모범적인 학교 경영으로 '학교 평가 우수학교'(2007), '학교경영 우수학교'(2007), '특별활동 우수학교'(2008), '교육과정 자율화 우수학교'(2009) 등의 표창을 수상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 특수교육계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적극적인 특수교육 프로그램들은 장애학생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졸업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승집 교장은 지체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사회 적응력을 기르고, 삶의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새롭학교의 목표이자 교사들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은 장애도 꺾을 수 없음을 몸소 보여준 최승집 교장의 신념.

최승집 교장이 있는 한 새롭학교의 학생들은 언제나 행복하고, 희망을 꿈꿀 수 있을거라 믿습니다.

_ 글 SRC새롭학교 박은재 선생

선천성 근성 사경

congenital muscular torticoll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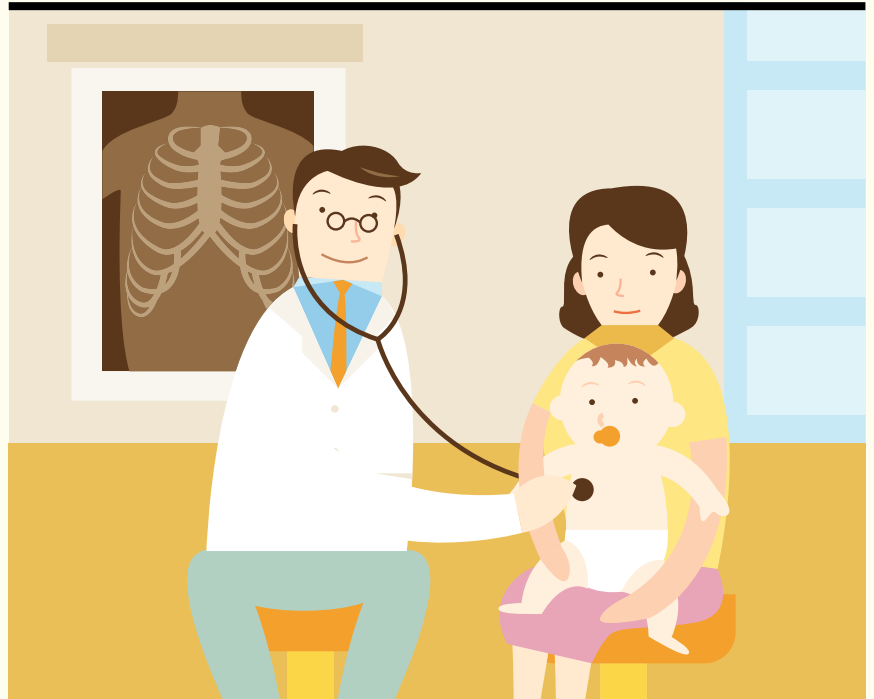
흉쇄유돌근(Sternocleidomastoid muscle) 두께의 증가 및 길이 단축으로 인한 사경을 말하며, 흔히 사경으로 명명하나 정확히는 동측으로의 측경과 반대측으로의 사경이 나타난다. 영아기의 두경부 자세 이상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편측의 흉쇄유돌근의 길이 단축으로 인해 목의 운동범위의 제한을 보이게 되고 흉쇄유돌흉쇄 축진할 때 반대측에 비해 두꺼워져 있는 경우가 많다. 초음파 검사와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통해 흉쇄유돌근의 두께 차이, 정상 근육섬유 양상의 소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외래에서 초음파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다.

머리를 두꺼워진 흉쇄유돌근 쪽으로 돌리려 할 때 아이가 돌리려 하지 않거나 울게 되고 반대측으로 굴곡시키려 할 때도 근육의 신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저항감이 느껴지게 된다. 크게 근육이 두꺼워진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도 많다.

선천성 근성 사경의 약 5-10%에서 사경 측의 고관절 이형성이 동반되기 때문에 사경으로 내원한 환아는 고관절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생후 6개월 이내에는 고관절의 이상을 일반 방사선 검사로 확인할 수 없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

치료가 적절히 안 된 상태로 성장하게 되면 두꺼워진 흉쇄유돌근 측으로 고개를 돌릴 때 목



전체를 사용하여 돌리게 되고 두개부의 비대칭(plagiocephaly)이 진행되고, 보상으로 어깨를 올리면서 시선을 수평으로 맞추려다보면 경추 부위의 측만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선천성 근성 사경의 원인은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자궁 내 이상 자세, 분만 외상설, 출생 전 흉쇄유돌근에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울혈(구획증후군) 등의 가설 등이 있다. 정확한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신생아기에 초음파 검사로 진단을 할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로 보통 생후 3-12개월 정도에 두꺼워진 흉쇄유돌근이 정상과 비슷하게 줄어들게 된다. 초음파 검사로 진단 및 영상의 유형에 따라 치료에 반응이 좋은 군인지 안 좋은 군인지를 조심스레 예측해볼 수 있다. 재활치료는 단축된 근육의 길이를 신장시켜 경부의 운동범위를 정상으로 만드는데에 목적이 있다. 재활치료(운동치료)는 단축된 흉쇄유돌근의 신장운동이 기본이며, 근육의 신장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한 보호자 교육도 중요하다. 생후 3-4개월이 지나면 아이가 목을 스스로 가누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치료에 대한 저항감이 커져서 치료가 다소 어렵게 된다. 이때 무리하게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신장운동을 적절한 시행하기가 어렵게 되어 무리한 치료보다는 아이의 능동적인 운동이나 보호자 교육 위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선천성 근성 사경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빠른 시기에 발견하고 진단하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치료에 반응이 적은 경우는 보툴리눔 독소 주사치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다.

_ 글 SRC 재활병원 재활의학과 과장 조수경 과장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은 끊임없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과거 단순히 교육을 받는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부모, 강사, 기관이 대등한 입장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교육으로 범위가 넓어져야 할 것이며, 부모들로 하여금 부모교육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희망을 품은 교육

.....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 강조

☞ 장애자녀 부모교육의 현황

장애부모는 자녀의 반응결여와 발달지체로 인한 실망감과 좌절 등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하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 부모들은 장애자녀의 독특한 행동과 발달 특징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자녀와의 적절한 상호작용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장애인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 보건소, 장애인부모회, 특수학교, 기타 교육기관 등에서는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녀들의 제한된 능력과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와 사회에서 적절히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장애 자녀의 특성과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기관별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3년에는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어, 보건복지부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사업을 공모하여 부모교육 운영에 대한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하였다. 이는 부모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최근까지 부모교육은 교수, 치료사, 전문가들이 부모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강의형, 기초교육형, 심화교육형 등 전달식 강의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서 많은 부모교육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고 있기에,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있어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은 끊임없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과거 단순히 교육을 받는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부모, 강사, 기관이 대등한 입장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교육으로 범위가 넓어져야 할 것이며, 부모들로 하여금 부모교육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들의 요구가 반영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2013년 남부장애인복지관 부모교육

본관에서는 부모들의 욕구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2013년 부모교육의 진행방식을 중점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 부모교육 평가 결과, 부모교육 내용이 어디서 들었던 것 같은 식상한 내용이라는 의견이 있어, 참여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늘려 각 개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고자 토의식 교육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을 물었고, 응답자들은 토의식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부모교육 욕구조사 결과는 부모교육의 주제 선정 및 진행방법에 있어서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13년 부모교육은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자녀 연령별 자녀계획을 주제로 대상자 연령층에 따라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3그룹으로 나누어 3회기를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직업과 관련한 기관견학을 1회기 추가 실시하였다.

부모교육의 향후 방향

2013년 부모님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토의식 비중을 높인 교육으로 부모교육을 진행하였다. 참여하신 부모님들은 자유롭게 자녀에 대한 궁금증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만족을 나타냈으나, 장애 유형 및 자녀 각각이 처해 있는 상황이 달라, 궁금한 점이 상이하였다.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충분히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한 아쉬움을 나타내셨다. 이에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관심 있는 주제를 실질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2014년 부모교육은 소그룹(10명~15명)이 참여하는 본인토의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부모들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 뿐만 아니라 기관 견학 등도 함께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부모님들을 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글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김지영 사회복지사



부모교육

내 자녀에게 필요한 치료는?	
1차 (6/7)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참여자:28명) 최정실 교수(충북보건과학대 직업치료과)
양육스트레스 해소 및 자녀 마음 들여다보기	
2차 (7/8)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참여자:25명) 김수진 교수(연성대 유아특수재활과)
내 자녀의 취업과 자립	
3차 (10/11)	청소년·성인기 자녀를 둔 부모(참여자:40명) 변경희 교수(한신대 재활학과)

기관견학

행복을 만드는 집	
1차 (11/6)	(전기제품 임·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자녀의 취업에 관심 있는 부모(참여자:총 37명)	
3차 (11/13)	보호작업장 소개 및 질의·응답, 라운딩 실시



*SRC NEWS

SRC 주요소식, 생생한 정보, 유익한 소식을 공유 합니다.



SRC 요양병원



웃음치료 프로그램 운영

장소 SRC 베네라이프 요양병원 11병동 강당
일시 매주 수, 오후 4:00~5:00

웃음소리나 웃을 때의 근육 움직임 등은 뇌를 자극해 통증을 완화시켜 주며, 엔돌핀, 행복감을 주는 옥시토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해주는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들이 분비되어 신체와 정서 등에 긍정적인 영향과 치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연극치료 프로그램 운영

장소 SRC 베네라이프 요양병원 11병동 강당
일시 매주 화, 오후 2:30~4:00

암 환자의 정신적 고통을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는 '디스트레스(distress)'라고 정의하였다. 표현예술을 통하여 '고통 담아내기', '암 받아들이기'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켜 전인적이고 통합적인 치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암보험 보상학' 설명회

장소 SRC 베네라이프 요양병원 11병동 강당
일시 2013년 10월 31일

저명한 손해사정사를 초빙하여 암치료 및 입원 관련 각종 보험 적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입원환우들의 질의, 응답을 통하여 명확한 해결책에 대한 설명을 듣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온가족힐링콘서트'

장소 광주시문화스포츠크터 대공연장
일시 2013년 11월 5일

경기광주시오페라단과 광주문화원 주최로 열린 행사에 SRC 베네라이프 요양병원 환우들을 초청. 몸과 마음의 힐링과 감동을 선물.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한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굿삭소 앙상블 공연

장소 SRC 베네라이프 요양병원 11병동 강당
일시 2013년 12월 4일

퇴원환우 허인자님께서 활동하시는 색소폰 동호회에서 입원환우들을 위하여 아름다운 색소폰 연주를 선물해주는 사랑과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환우들과 함께하는 송년잔치

장소 SRC 베네라이프 요양병원 11병동 강당
일시 2013년 12월 18일

2013년 한해를 되돌아보며 정리하고, 희망찬 2014년을 맞이하며 1년의 생활모습 사진 상영, 환우들의 숨겨진 장기자랑 등을 나누는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직업재활센터



근로장애인 퇴직연금 설명회개최

일시 2013년 12월 11일
장소 SRC직업재활센터

퇴직연금 설명회를 통해 근로장애인들이 퇴직금의 소중함과 안정적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퇴직연금가입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근로장애인 추가고용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장 확장

일시 2013년 12월 12일
장소 SRC직업재활센터

근로장애인의 추가 고용 및 복리후생(근무환경개선)추진을 위해 지식산업센터(한라시그마밸리)로비층에 사업장을 추가 마련하여 운영하였다.



"2013년 직업재활의 날" 기념 직업재활복지유공자 표창

일시 2013년 12월 19일
장소 서울여성프라자

직업재활의 날을 맞이하여 근로장애인 황득영씨가 직업재활복지유공(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표창을 받았다.



겨울맞이 김장나눔행사

일시 2013년 10월 5일
장소 SRC직업재활센터

동부화재의 지원으로 몸 불편한 근로장애인 35명에게 맛있는 김장 나눔 행사가 진행되었다.



2013년 성남시장장애인일자리페스티벌 참석

일시 2013년 10월 31일
장소 한마음복지관

장애인채용박람회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직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센터의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2013년 직원 및 반장단 워크숍 개최

일시 2013년 11월 22일 ~ 23일 (1박 2일)
장소 수안보 한국콘도 / 문경새재드라마 촬영장

2013년 사업평가 및 2014년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직원 및 반장단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날은 직원 및 반장단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2013년 직원 및 근로장애인 송년회

일시 2013년 12월 27일
장소 참돈

2013년 한해를 보내며 그동안 함께했던 동료들과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며 감사와 정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음. 이날은 법인에서 지원된 "무릎담요 나눔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더욱 훈훈한 자리가 되었다.





서울센터



2013 SRC유아스포츠단 가족운동회

일시 2013년 10월 26일 14:00~17:30

SRC유아스포츠단은 학부모 및 가족을 모신 가운데 금천초등학교 실내 체육관에서 '2013 가족운동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축구 선생님이 운영하는 '짐놀이 키즈스포츠'에서 메인 진행을 맡아 약 200여명의 가족들이 참석한 이 날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모두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SRC부설의원 기능보강 사업 - EMR(전자의료기록) 시스템 설치

기존 OCS(처방전달시스템)를 통합하는 EMR(전자의료기록)시스템을 도입하여 병원 내 각종 서식서류를 서버 내 저장하여 신속한 업무와 정확한 데이터 정리 및 보관이 가능해졌다.

프로그램 업체 (주)네오소프트뱅크 _ 서버설치/프로그램 설치/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교육

서울센터 누수방지 공사

일시 2013년 11월 18일 ~ 2013년 12월 6일

4층 하늘구장 및 옥상 누수방지 공사



2013 서울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_ SRC스포츠센터(관악구 인솔본부) 참가

일시 2013년 11월 16일 / 23일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장애인 체육행사로는 최대 규모인 '2013 서울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13개 자치구의 선수단, 임원 및 보호자 등 총 6,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째날, 16일(토)은 개인전으로 수영,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 등의 경기가 열렸고, 둘째날, 23일(토)은 개회식 행사와 단체전으로 줄다리기, 정확하던지기, 보치아 등을 치렀다. SRC스포츠센터는 관악구 대표 인솔본부를 맡아 관악구 선수와 보호자, 임원 등 150명이 참가하여 적극적으로 행사에 임해 좋은 성과를 이뤘다.

SRC유아스포츠단 크리스마스 행사

일시 2013년 12월 20일

SRC유아스포츠단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 홀에서 "호두까기 인형" 뮤지컬을 관람한 뒤 산타 이벤트를 진행했다. 아이들의 선물은 유아스포츠단에서 준비하고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아이들 개개인에게 선물을 전해주고 사진 찍고 기념하는 추억에 남은만한 시간을 가졌다.

SRC부설의원 연말 이벤트

일시 2013년 12월 2일 ~ 2013년 12월 23일

12월 22일 SRC부설의원 개원기념일과 연말을 맞이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고 사진촬영 및 사연을 소개하며 2013년 함께했던 추억을 다시 돌이켜보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SRC 재활병원

쿠알라룸푸르 아시아 장애인청소년 경기대회 의무지원 팀장으로 해외파견

일시 2013년 10월 23일 ~ 11월 1일
파견자 재활의학과 박진영 과장



재활의학과

토요일 외래진료 실시

일시 2013년 11월 23일



재활병원 송년회

일시 2013년 12월 19일



사회사업팀

풍선아트 프로그램 실시

일정 : 2013년 10월 15일

의부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 에버랜드 현장견학

일정 : 2013년 10월 17일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배드민턴종목 선수출전-은메달획득(민병연)

일정 : 2013년 10월 24일

경기소리보존회 전통음악 공연

일정 : 2013년 10월 29일

풍선아트 프로그램 실시

일정 : 2013년 11월 19일

어울림색소폰동호회 공연

일정 : 2013년 11월 19일



아가페양상블 공연

일정 : 2013년 11월 28일

한국난치병협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일정 : 2013년 12월 2일

12월 병동노래자랑

일정 : 2013년 12월 10일

2013 SRC재활병원 송년잔치

일정 : 2013년 12월 19일

소아낫병동실 산타잔치

일정 : 2013년 12월 24일



SRC 요양원

노인의 날 행사

장소 SRC요양원 난초마을
일시 2013년 10월 11일

2013년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요양원 가요제를 실시 함.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과 함께 진행하고 직접 참가곡을 스스로 선택하여 가요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존감을 높이고 열띤 경쟁을 통하여 상품도 푸짐하게 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식전행사로 지역 사회 연계를 통한 봉사단의 훌륭한 연주와 민요장단은 어르신들의 흥을 띄워 평소 모시기 힘든 어르신들께서도 함께 하여 노후의 삶에 활력소가 될 수 있었다는 평을 들을 수 있었다. 다채로운 이벤트 상을 준비하여 모든 분에게 기쁨을 선사 할 수 있어 더욱 뜻있는 행사가 되었다.

징검다리 봉사단

장소 SRC요양원 매화마을
일시 2013년 11월 23일

주말에 무료함을 달래줄 수 있는 징검다리 공연단이 요양원을 찾아오셨다. 양상블, 민요, 트롯트가수, 밸리댄스, 북춤, 7080가수 등 다양한 전문인들이 모여 다채로운 음악 선물을 주셨다. 특히 밸리 댄스는 다른 공연과는 다르게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평소 접하지 못한 춤을 보여 주어 흥미로웠다 하셨다. 서명옥 어르신은 죽기전에 이런 아름다운 공연을 보여 주셔서 감사하며 눈시울을 적시기도 하시며 꼭 다시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기억하여 징검다리 봉사단도 어르신께서 이렇게 반겨 주셔서 고맙고 많이 배우고 간다고 말씀 하셔서 훈훈한 정을 나누셨다.

요양원 송년 행사

장소 SRC요양원 매화마을
일시 2013년 12월 13일

요양원 어르신과 직원여러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한해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다.



SRC 보듬터



지역사회 자립 네트워크를 통한 장애인 리더양성 및 자립 역량강화 사업참여자 2차 리더대회(일본연수)

장소 일본 도쿄 및 오사카 자립생활관련 시설
일시 2013년 10월 1일 ~ 3일

자립역량강화 사업참여자 2차 리더대회로 일본 자립생활 관련 시설을 방문하여 자립과 관련하여 정보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역사회자립네트워크를 통한 장애인 리더양성 및 자립 역량강화사업 성과세미나'

장소 국회의원 회관 제 2소회의실
일시 2013년 11월 27일

SRC보듬터가 주관하고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사회복 지법인 SR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립역량강화사업 성과세미나를 개최했다.



SRC 보듬터 송년의 밤

장소 SRC 재활체육관
일시 2013년 12월 18일

2013년 한해를 마무리 하며 보듬터 이용자와 직원, 그리고 한 해 동안 도움을 주셨던 감사한 분들을 모셔 한 해를 뒤 돌아 보며 서로 감사와 정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SRC 재활체육관

제 3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가

참가인원 SRC선수 5명
실적 금3, 은10, 동2
*조기성선수 자유형 50m(전:42°60→40°11) 100m(전:1°34°02 → 1°31°95) 비공인 세계신기록 작성

조기성 선수 취재

장소 SRC 재활체육관 수영장
의뢰 10월 11일 = 2014 인천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10월 14일 =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유치기념 전국장애인수영대회

기간 2013년 12월 7일 ~ 8일(2일간)
장소 광주광역시 영주수영장
인원 선수14명, 보호자 9명, 감독1명



제4회 충북도지사배 전국장애인 수영대회

일시 2013년 11월 9일
인원 SRC선수 12명, 감독1명, 보호자 8명
결과 금7, 은7, 동1

2013~2014년도 겨울방학 특강 모집

모집기간 2013년 12월 9일 ~ 선착순 모집
모집인원 90명
강습기간 2014년 1월 2일~1월 29일 (4주간)



후원사업본부

후원금(품) 후원

- 일시** 2013년 10월 10일
내용 동부화재 1,500만원 후원
- 일시** 2013년 10월 24일
내용 삼우건축사사무소 300만원 후원
- 일시** 2013년 11월 18일
내용 용산고총동창회 300만원 후원
- 일시** 2013년 12월 11일
내용 국민은행 경안지점 1,000만원 후원
- 일시** 2013년 12월 30일
내용 루이까또즈 1,000만원 후원



- 일시** 2013년 10월 ~ 12월
내용 난다, (주)빈센치오, (주)에스엔테크, 송원화공, 대봉식품, YD인터네셔널, 세준푸드, (주)뷰티벨, 리브어패럴, 트로키&타블렛 등에서 1M(One Miracle)산타클로스 바자회 물품후원
- 일시** 2013년 11월 13일
내용 피자헛 경안2호점(유병준 사장) SRC 새롭고 학교 학예회 피자26판 외 후원

자원봉사활동 진행

- 일시** 2013년 10월 23일 / 11월 20일
내용 아시아항공 임직원 자원봉사
- 일시** 2013년 11월 1일, 5일, 15일
내용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임직원 자원봉사

후원사업 및 행사진행

- 일시** 2013년 10월 ~ 2013년 12월
내용 광주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MOU체결 및 다문화가정(30명) 무료건강검진사업 실시
- 일시** 2013년 10월 12일
내용 "1004김장 나눔 축제 행사" 동부화재 임직원(90여명)들과 함께 김장김치를 담궈 광주시 소외계층(400가구) 지원



- 일시** 2013년 12월 12일 ~ 13일
내용 겨울철 추위를 대비한 방한도구 선물과 재활 및 자립사업 후원금 모금을 위한 1M(One Miracle)산타클로스 바자회 진행

- 일시** 2013년 12월
내용 4분기 저소득 위기가정 의료비지원 사업 전달식 진행



재활학교

중학교 수학여행

장소 통영일대
일시 2013년 10월 16일 ~ 18일
대상 본교중학교 전체

고등학교 졸업여행

장소 백제 부여 문화권
일시 2013년 10월 23일
대상 고등학교 3학년

현장학습

장소 나인스에비뉴 예술나무씨어터
일시 2013년 10월 23일, 25일
대상 본교 초등 고학년

일본 키리가오카 특별지원학교 교류회

일시 2013년 11월 6일
대상 일본에서 총 7명 본교방문
일시 2013년 11월 20일 ~ 22일
대상 학교장, 교사2명, 학생2명 일본방문

학예발표회

광주분교
일시 2013년 11월 13일
서울분교
일시 2013년 11월 15일



제22회 눈높이교육상 학교장 수상

장소 보라매 대교타워
일시 2013년 11월 14일
대상 학교장

사회적응훈련

장소 가든파이브
일시 2013년 11월 21일
대상 고1

교내 워드프로세서 대회

일시 2013년 11월 26일
대상 전교생

오텍배 보치아 대회

일시 2013년 11월 29일
장소 정립회관
참가학생 초3 정시은, 초5 조혜원

교육활동평가회

일시 2013년 12월 26일 13:00 ~ 12월 27일 15:00
장소 영흥도 더블파이브 리조트
대상 학교장 및 전교사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3차 부모교육 '내 자녀의 취업과 자립'

장소 복지관 강당(여울채)
일시 2013년 10월 11일

청소년 및 성인기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녀의 진로 방향 및 자립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제 14회 하나됨을 위한 가을 운동회

장소 상명대학교 체육관
일시 2013년 10월 18일

복지관 이용자 및 상명대학교 학생 230명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됨을 위한 가을 운동회를 실시하였다.



제 1회 SRC 장애인 스크린 골프대회

장소 여의도(Golf Zone 스크린 골프 연습장)
일시 2013년 10월 19일

지적·자폐성 장애인 선수 30명을 비롯해 100여명이 참여하여 골프존 G-TOUR에 소속된 프로선수 10명과 함께 10개조로 나누어서 골프대회를 실시하였다.



현장부모교육

장소 경기도 수원시(장애인직업장-행복을 만드는 집)
일시 2013년 11월 6일, 13일

청소년 및 성인기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관소개, 작업장 라운딩을 통해 실제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작업하는 환경을 직접 둘러보았다.

2014년 사업설명회 & 관장과의 대화

장소 복지관 강당(여울채)
일시 2013년 12월 9일

이용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와 함께하는 2014년 사업설명회 & 관장과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송년회 'Song(송) & 송(Song) Festival'

장소 아카데미 컨벤션
일시 2013년 12월 11일

복지관 이용자 및 후원자, 자원봉사자, 직원 등 400여명과 함께 어우러져 송년회를 실시하였다.

제1회 SRC 컬링대회

장소 복지관 강당(여울채)
일시 2013년 12월 13일

장애인들의 유연성 및 집중력 향상과 재활치료에 큰 효과가 있는 컬링대회를 20세 이상의 성인장애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SRC 언어심리상담센터

놀이치료실 개설

일시 2013년 10월 1일

한국임상심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참석

일시 2013년 10월 10일 ~ 11일
장소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보건복지부 장애아동재활치료 서비스 현장 점검

일시 2013년 10월 21일

광주시청 드림스타트 사업 MOU 체결

일시 2013년 10월 18일



작은 프란치스코의 집 업무 협약

일시 2013년 11월 26일

SRC 법인

2013년 사회복지법인SRC 총무식

일시 2013년 12월 19일



남부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

2013. 경기도 기획여행 참석

일시 2013년 10월 5일 09:00~20:00
대상 총 30명
내용 2013. 경기도 기획여행 이용
장소 행주산성-DMZ관광-장단콩마을
주관 경기도 관광협회



광주시 및 3개군 무한돌봄센터와 함께하는 "물 사랑 더하기, 무한돌봄 행복나누기"

일시 2013년 12월 26일 10:30
장소 광주시청 상항실(6층)
대상 총 600세대
지원물품 EM환경비누(3入), 참치(12入)
주최 광주시 남부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
주관 한국수자원공사
지원금액 총 18,120천원(세대당 30,200원 상당)
협력기관 광주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외 9개 기관



2013. 동절기 난방재(연탄) 지원사업/ 총 32세대, 연탄 11,000장 지원

일시 2013년 11월 ~ 12월
지원처 동성남로타리, (주)신한피엔에프, 평화교회, 「광주시민포럼」, 광주시 「토목회」, 한국석유관리원, SK상사, 광주지방공사



2013.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 평가 "복지행정상 보건복지 연계협력 부문" [최우수상]수상

경기도 "찾아가는 무한돌봄센터" 평가 [최우수상]

Adieu 2013! Start up 2014!

“꿈을 만들어간 2013. 2014를 꿈꾸다.”

SRC 한마음 Festival, 희망찬 2014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추억과 소중한 기억을 안겨 주었던 지난 한해, 바쁘게 하루 하루를 보내왔던 SRC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2014를 준비하는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가족, 직원, 그리고 환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행복을 빌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겹게 달려온 우리에게 자그마한 상을 주고자 송년회를 준비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으로 하나가 된 SRC송년회

부서도 직위도 다르지만 오늘 하루 우리는 하나된 가족이었습니다. 같이 손잡고 뛰며 서로의 어깨를 주무르며 힘들었던 모든 것을 환한 미소로 다 털어주었습니다. 이사장님의 송년사로 시작된 송년회는 글로벌 복지 리더의 선두를 위해 열심히 달려온 직원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삼성으로 우뚝서기위해 더 열심히 달려야하지만 오늘이 있기에 손잡고 같이 동행할 동료들이기에 이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멋진 클래식 공연과 직원들의 끼를 흠뻑 뽐낸 장기자랑, 그리고 화합의 한마당. 하나의 목표로 달려온 한해였지만 이제 서로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웃음과 화합의 한마당이었습니다.



- 01 우수직원 표창
- 02 소프라노 이은희 씨의 공연
- 03 '내년 한해도 화이팅!'
- 04 정년직원 감사장 전달
- 05 테너 광상훈씨와 소프라노 이은희씨의 듀엣공연
- 06 '내년 한해도 화이팅!'
- 07 장기자랑 우승팀 '남부복지관'의 공연
- 08 직원 장기자랑



01

SRC Hospital

환우와 보호자 그리고 SRC병원이 한 가족이 된 병원 송년회

매년 송년회를 준비하지만 그 해마다 항상 긴장되고 기다려지는 시간.
직원과 환자가 가족처럼 하나가 되어 웃음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후회가 많은 한해였지만, 누군가는 아쉬운 한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모든걸 털어 버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새로운 한해를 맞이합니다. 한걸음 한걸음 걸어가 한해를 보냈듯 이제 또 새로운 첫 발을 내딛습니다. 환자와 직원이 하나되어 뒤에서 오면 밀어주고 조금 앞서면 끌어주는 그런 가족같은 한해를 준비하는 송년회 자리였습니다. 환자분들의 노래자랑, 직원들이 준비한 장기자랑으로 한바탕 큰 웃음을 선사하는 자리였습니다.



02



03



04

- 01 '청석 에듀시어터' 청소년 뮤지컬 갈라쇼
- 02 동원대학교 '이글스 응원단' 응원공연
- 03 재활병원 환자분들에게 의료비후원금 전달
- 04 재활병원 환자분들의 노래자랑

손에 손잡고 하나된 요양병원 송년회

매일매일 자신과 병마와의 싸움을 이겨 나가는 요양병원 환우분들
 오늘 만큼은 모든 것이 웃음으로 치유되는 날 입니다.
 가수도 되고, 댄서도 되고, 연주가가 되어 꿈을 이루어낸 오늘 하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송년회가 되었습니다.



- 01 요양병원 환자분들의 플룻 듀엣공연
- 02 요양병원 환자분과 직원의 살사댄스공연
- 03 요양병원 환자분들의 댄스공연
- 04 다함께 춤을 '댄스파티'
- 05 요양병원 환자분들의 라틴댄스공연



가는 세월도 막을 수 없는 젊음의 무대, 요양원 송년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평생을 우리 가족을 위해 몸바쳐 왔지만 오늘 하루는 젊은 시절로 돌아갑니
 다. 예쁘게 단장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세월을 거슬러 올라 갑니다. 여고시절
 불러 봤던 노래, 춤을 같이하며 행복한 그 시절의 송년회로 돌아 갑니다.

_ 글 SRC 기획홍보실 최오현 대리

- 01, 02 '뷰티플 하모니' 민속 민요 공연
- 03 '뷰티플 하모니' 색소폰 하모니카 기타 합동공연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동부화재 후원금 전달식

지난 10월 12일 사회복지법인SRC(이사장 민오식) 광주센터에서 후원사업본부 이봉희 단장과 동부화재(대표이사 김정남) 전호탁 부사장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받은 후원금 1천 5백만원은 광주지역의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1004 김장나눔 축제'에 사용되었습니다.

동부화재는 대표이사를 단장으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프로미봉사단'을 출범하고 전국 7개 지역에서 재난 구호 활동 및 사회복지시설 무상 안전점검, 사랑의 쌀 나누기, 연탄 배달, 다문화가정 지원 등 다양한 테마별 봉사활동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 나눔에 필요한 재원은 임직원들의 급여공제 기부금과 회사의 1대 1로 매칭 그랜트로 조성한 프로미 하트 펀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후원금 전달식

지난 12월 11일 사회복지법인SRC(이사장 민오식) 광주센터에서 민오식 이사장과 국민은행(은행장 이진호) 김희승 경안지점장의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받은 후원금 1천만원원은 SRC보듬터와 체험홈 입소자들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관리운영 지원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민은행은 학술/교육, 문화/예술, 사회공익, 환경, 다문화, 글로벌 등의 테마를 통해 '희망별'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사회봉사단은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봉사활동 조직으로 50개 봉사단 및 1,200개의 단위 봉사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만 2천여 명의 임직원 모두가 1개 이상의 봉사단에 참가하여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루이까또즈 후원금 전달식

지난 12월 30일 루이까또즈(대표 전용준) 본사 사옥에서 후원사업본부 이봉희 단장과 루이까또즈 조광훈 팀장의 후원식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받은 후원금 1천만원은 SRC보듬터와 체험홈 입주자들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관리운영 지원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루이까또즈는 핸드백, 구두 등 피혁제품을 취급하는 대표적인 명품 패션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나눔 실천을 위해 임직원들이 주체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매월 관내 복지시설 봉사활동, 물품기증, 지식 나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업무협약식

지난 9월 24일 사회복지법인SRC(이사장 민오식) 광주센터에서 후원사업본부 이봉희 단장과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차종화 센터장의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식을 통해 양 기관은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상호 지원하게 되었으며, 후원사업본부에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건강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정착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무료건강검진 사업을 매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광주시 지역 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및 교육/상담, 통번역 및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_ 글 SRC 장석훈 기자

온기로 가득한 SRC의 겨울나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1004 김장나눔 축제_동부화재

지난 10월 12일 동부화재와 함께 광주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1004 김장 나눔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시 민·관 협력을 통해 동부화재 임직원, 광주시 노인종합 복지회관, 광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남부/북부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 대한 적십자 광주시 지구협의회 등 1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지역 내 장애인, 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 등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는 사회적 나눔 문화의 가치를 높이고자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절임배추와 배추 속 양념을 준비해 2,600kg, 400박스의 김장김치를 협력기관을 통해 소외계층 400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행사를 담당한 후원사업본부의 구윤덕 사회복지사는 “나눔 행사를 통해 광주시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동부화재가 함께 협력해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에 행사를 후원한 동부화재는 “지속적인 지역 나눔 행사를 통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산타가 되어주세요_바자회

매년 이맘 때면 들려오는 성탄절 노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자 하는 나눔의 종소리. 각종 방송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나눔의 이야기. 2013년 마지막 12월에도 성탄절과 연말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다양한 나눔의 모습을 길거리에서 쉽게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눔 활동들이 있기에 추운 겨울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12일 ~13일 이틀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사회복지법인SRC광주센터에서도 산타클로스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1회 "산타가 되어주세요"

나눔 바자회는 크리스마스 선물 전달과 재활치료 중인 환우분들 중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목적으로 기업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후원업체인 대현, 비알코리아 등 30개 기업의 도움으로 행사가 성황리에 진행 되었습니다.

SRC 메리 크리스마스 행사

12월 25일 아이들은 누구보다 신나고 즐거운 날입니다. 다들 아쉬웠지만 모든 아이들이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SRC광주센터에 있는 대부분의 장애어린이들은 부모님이 없거나 경제적인 상황으로 선물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도 우리 아이들은 더 외롭고 쓸쓸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24일 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장애어린이(소아병동, 생활시설), 노인(요양원), 저소득환자(재활환자), 근로장애인(직업재활) 총 360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귀마개, 장갑, 수면양말)을 전달하였습니다.

SRC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

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활 환자분들을 지원하는 나눔 사업입니다. 이번 지원은 사례회의를 거쳐 5명의 환우분들이 선정되어 12월 19일(목) 의료비 지원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담당한 후원사업본부의 최광기 사회복지사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맨손으로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방한도구를 선물할 수 있었던 뜻 깊은 행사였으며, 많은 장애인, 노

인 분들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행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글 SRC 장석훈 기자

바자회를 함께한 기업들

(주)대현 · 피자헛 광주경안2호점 · (주)각시 · (주)정진식품 · 유파인드잇 · 스토리 · 세준푸드 · 부흥홀딩스 · 드림텍스타일 · 난다 · 나인 · yd인터내셔널 · CA종합상사 · AGT컴퍼니 · (주)티지인터내셔널 · (주)초코텍 · (주)에스엔테크 · (주)송원화공 · (주)빈센치오 · (주)비앤씨 · (주)비알코리아 · MD인터내셔널 · 슈자이너 · 대봉식품 · 디엔엠에프티 · 다익 · ARAM(트로키&타블렛) · 미도 · (주)뉴티벨 · 유상현

“믿음이란 계단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_ 마틴 루터 킹



멀지 않은 자립의 꿈, *Dream!*

자립의 꿈에 더 다가간 그들의 이야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시설을 퇴소하고 나면 지역사회로 나가게 된다. 하지만 시설에서만 지내다 지역사회로 나와 생활하는 데에는 시행착오가 있다. 체험 홈과 자립생활가정은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 적응을 한 후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 온전한 자립을 꿈꾸는 곳이다. SRC에서 운영하는 체험 홈은 총 12명의 퇴소 장애인들이 살고 있으며 그 중 3명이 자립생활가정으로 보급자리를 옮겼다. 이들은 보다 더욱 전문적인 자립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사회로 나가는 발걸음을 천천히 딛고 있다. 자립생활가정에서 자립의 꿈에 더 다가간 그들의 이야기와 소감을 들어보고자 한다.



story 1. 김 은 지

체험홈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했고 배웠다. 금전관리 교육을 배우면서 통장정리도 할 수 있고 가게부도 적을 수 있게 되었고 적금도 하면서 돈도 모을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것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우리가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코디네이터 선생님과 회의도 하고 함께 계획도 세워서 갈 수 있게 되었다.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우리들끼리 직접 가보고 자유롭게 다니며 좋은 곳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가 직접 해나갈 수 있어서 행복했다. 자립생활가정에 가셔도 배운 것들을 기억해서 잘 지내고 싶다.



김은지

story 2. 변 지 은

나는 체험홈에 있는 동안 제일 좋았던 것이 있다. 처음으로 직장에 다니게 된 것이다. 지금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작업장에 다닌다. 한 손이 불편하긴 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작업장에 출근하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간식도 먹고, 또 거기에서 미술활동과 요리 만들기 같은 프로그램도 할 수 있어서 즐겁다. 처음에는 가기 싫었었는데 지금은 회사에 다니고 월급도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자립생활가정에 가더라도 계속 직장을 다니고 싶다.



변지은

story 3. 김 선 우

2011년부터 2013년 12월 18일까지의 2년간의 체험홈 생활을 그리워해본다.

2년간 체험홈 생활을 하면서 제일 즐거웠던 것은 뮤지컬관람과 가장 좋아하는 운동인 농구관람이다.

그리고 또 즐거웠던 것은 친구들과 함께 여자 친구를 만나는 것이고 또 2012년도에 일본에서 열린 RI세계대회를 참여했던 것이다. 그때 일본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친해지고, 헤어질 때는 연락처도 교환을 해서 아직도 국제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고 있다.

교류를 하면서 일본사람들의 발음을 잘 들으면서 해석하고, 일본어를 새로 배운다는 자체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즐거운 추억이고, 평생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

나는 이제 자립생활 가정에서 열심히 생활을 할 것이고 그 안에서 앞으로 해야 할 독립도 열심히 연습하고 헤인이라는 친구와 1층에 사는 형, 누나와도 사이좋게 지낼 것이다.

자립생활가정에서 나의 삶을 위해 계획도 세우고, 일본이나 동남아로 여행도 갈 생각이며, 이성교제도 하고 싶다. 2년 동안 정들었던 체험홈을 뒤로한 채 자립생활가정으로 나와서 아쉬움도 많이 남고, 같이 동고동락한 네 명의 친구들도 생각이 많이 나지만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어 다행인 것 같다.

자립생활에서 더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후의 나의 삶을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다.



김선우

달팽이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발걸음은 느릴 뿐이지 결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늦고 뒤쳐지더라도 한 발자국의 소중함을 배우기를 SRC가 응원합니다!



茶와 사랑에 빠지다

30초의 미학을 배우는 방법

추운 겨울, 몸을 녹일 한 잔의 차를 마시기 위해서는 30초의 미학이 필요하다. 차를 우려내고, 체에 걸러서 내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까지 필요한 시간이다. 여러 가지 차의 효능은 둘째 치더라도 차는 먹는 방법 자체가 매력적이다.

빠르지도 않으면서 쉽게 그 향과 맛이 사라지지 않는다. 여러 번 우리면 우릴수록 오히려 그 깊은 향과 맛을 느끼게 해준다. 항상 빠르고 순간 순간을 즐기며 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미학을 선물해 준다.



겨울에 마시면 좋은 차

일반적으로 비타민이 풍부한 유자차나 모과차가 추운 겨울, 감기에 좋은 것은 익히 알고 있다. 여기서서는 조금 색다른 두 가지 차를 소개하려고 한다.

· 국화차

국화차는 오랫동안 보용하면 혈기에 좋고 몸을 가볍게 하며, 위장을 편안케 하고, 사지를 고르게 한다. 그 밖에도 감기, 두통, 현기증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피부 노화 방지에도 좋아서 추운 겨울 날씨에 상한 피부를 달래는데 큰 도움이 된다.

· 보이차

보이차는 특히 복부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몸을 따스하게 해주는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몸이 냉할 때에는 그 어떤 것보다 특효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좋고 노화방지에도 좋다고 한다.



도심 속 조용한 찻집

일반적으로 전통 찻집을 생각하면 인사동이나 종로쪽을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생각보다 주변에 다양한 차를 판매하는 곳이 많다. 이번엔 홍대에 있는 '두레차'를 소개하고자 한다. 젊은이들의 열기가 느껴지는 홍대 골목 어귀에서 의외의 찻집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분위기의 노골적인 전통 찻집이 아니어서 낯설지 않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맛있는 차를 마실 수 있고, 차 마시는 법에서 툭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직원이 있어 좋은 곳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차가 있고, 아기자기 예쁜 소품들이 있어 운치 있는 곳이다.

추운 겨울 날, 춥다고 집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기 보다는 따뜻하고 여유있는 차 한잔과 다과가 있는 그곳에서 책 한권 들고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 어떤 겨울나기 보다 매력있지 않을까?

글 SRC 한상원 기자





지금은 겨울이라 자전거를 타기 추운 날씨가지만 몇 달 후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산과 들로 자전거를 끌고 나올 것이다. 자전거는 오랫동안 우리와 같이 즐겨온 이동수단이자 스포츠인데 최근들어 다양한 자전거 종류에 따라 즐기는 매니아들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우리가 시중에서 접할 수 있는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MTB(산악자전거), 싸이클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로드바이크, MTB와 로드를 합친 하이브리드, 작은 사이즈의 접이식도 가능한 미니벨로, 싱글기어 픽시, 묘기용 BMX, 전기자전거, 일반 자전거(철티비) 등등 많은 자전거가 있다.

우선 자전거를 즐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다.

먼저 내게 맞는 자전거를 찾아보자.

자전거 가격대는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그냥 무작정 샅에서 디자인이 예쁜 자전거를 구입하기 보단 먼저 자전거의 특성과 타고자하는 성향 그리고 등급을 알 수 있다면 더 즐거운 자전거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간단히 자전거 특성은 튼튼하나 빠르냐 편하냐 이렇게 3가지로 보면 될 것 같다. 튼튼한 MTB, 빠른 로드, 편한 미니벨로, 이런 종류 안에서 선택하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의 추세를 보자면 MTB -> 미니벨로 -> 로드로 추세가 변하고 있다. 최근 로드가 대세인 이유는 자전거도로의 개선과 코스의 다양함, 그리고 사람들의 빠르게 가고자하는 욕구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자전거를 구입할 때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이 자전거의 등급이다. 자전거의 등급은 간단히 무게차이, 곧 소재의 차이로 그 등급과 가격이 결정된다. 자전거는 크게 프레임, 바퀴, 구동계로 나누어지며 그 속에서 세부적인 부품이 나누어진다. 소재는 알루미늄으로 시작해서 카본과 티탄등 다양하게 나누어지며 가벼울수록 가격대가 높아진다. 가벼운 자전거일수록 높은 등급이며 가격이 싸다. 1g 무게를 줄일 때 몇십만원의 금액차이가 날 수 있는데 가벼운 자전거를 찾는 이유는 가벼울수록 더 빨리 갈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차이를 느끼기 위해 어떤이들은 많은 돈을 자전거에 투자하지만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투자는 자신의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으로 본인의 엔진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더불어 자전거는 꽤나 과학적인 운동이다. 자기의 수준에 맞는 등급의 자전거를 찾았으면 본인 신체에 맞는 지오메트리의 자전거를 타는게 중요하다. 처음 샀을 때 안장의 높이와 핸들의 위치, 발이 페달에 닿을 때의 무릎 각도 등을 확인하며 꼭 적당한 피팅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잘못된 피팅은 무릎과 허리에 무리를 가할 수 있으며 잘못하면 자전거 타는게 괴로울 수 있다.

이제 자전거를 구입했다면 자전거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자전거를 즐기기 위해 꼭 모든 용품을 갖추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헬멧 제외) 각종 아이템들은 자전거생활을 더 즐겁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인의 취향에 맞는 아이템을 하나씩 갖춰서 즐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전거 용품은 헬멧, 고글, 의류, 신발, 장갑 등이 있는데 그중 헬멧은 필수다. 헬멧 외의 장비들은 필요에 따라 선택해도 좋지만 헬멧은 꼭 갖추어야 할 필수 보호장비다. 사고는 본인의 실수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며 예측할 수 없다. 특히 자전거는 스피드가 함께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더욱 사고의 위험이 크다. 자전거 헬멧은 라이더의 생명이라 염두하고 꼭 착용하자.

다음으로 저지가 있는데 한강에서 운동하다보면 쫄쫄이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는 라이더를 쉽게 볼 수 있다. 사실 입어보지 못한 분들은 그 쾌적함과 편안함을 이해 못한다. 자전거 저지를 입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바람의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것과 땀 배출의 용이함, 그리고 멋(?)이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도전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단점은 본인의 몸매가 그대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이지만 이것 또한 본인 스스로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의지를 만들어줄 수 있기에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 외 클릭스즈와 고글, 장갑등이 있다.

이제 장비를 다 갖추었다면 자전거를 타러 가야겠지만 그전에 안전수칙을 숙지해야 한다. 안전수칙에는 뒷사람을 위한 간략한 수신호와 기초적인 도로주행 수칙이 많이 있으나 올바른 자전거 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본 지침만 설명하고자 한다.

- ① 헬멧 착용
- ② 안전거리 확보
- ③ 핸드폰, DMB 사용금지
- ④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 내려서 걷기
- ⑤ 이어폰 착용금지
- ⑥ 야간주행시 야간지시등 켜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동차 만큼 안전수칙을 지키며 조심해서 타야 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 되어있듯이 자전거도로가 없을 시 오른쪽 끝 차로로 다니는게 원칙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 참조)

이제 자전거를 탈 준비가 완벽해졌다. 날씨가 풀리면 자전거를 타러 나가보자. 가까운 공원을 시작으로 더 멀리 갔다와 보는 것도 좋다. 자전거 코스는 한강과 양평쪽을 지나가는 4대강 종주길 그리고 더 멀리 속초와 제주도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으니 본인의 체력수준에 맞는 코스를 잘 판단해서 자전거를 즐기시길 바란다.

글 SRC 민병훈 팀장



GO! SRC FC



짜짜~짜짜짜~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안 외쳐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2002년 우리는 축구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축구는 이제 없어서는 안될 대중적인 스포츠입니다. 학교, 직장, 단체 등, 꼭 하나씩은 있는 축구 동아리가 우리 SRC 에도 마찬가지로 1등 동아리 SRC. FC (SRC 축구단)가 있습니다.

SRC. FC는 2011년 가을, 센터 동아리 활성화로 흩어져 있던 멤버들을 하나둘씩 모으고 신입 회원들도 모으며 다시 뜻을 모아 재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기도 없고 서로 호흡도 맞지 않아서인지 대회 예선탈락의 연속으로 참가에 의미를 둔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지만 올해 4월에 열린 광주시장기 대회에서는 준우승이라는 영광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퇴근 후 온갖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에 모여 서로 땀 흘리며 연습하고, 종종 있는 친선경기나 지역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쌓아온 팀워크로 이루어낸 쾌거였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비했지만 조금씩 발전해 가는 SRC. FC ~~!!

폭우가 쏟아지는 곳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운동장에서 뛰어본 적이 있나요??

심장이 터질 때까지 누군가와 함께 뛰어본 적이 있나요??

운동 후에 시원한 맥주의 참맛을 느껴 본 적이 있나요??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비록 직장을 통해 만난 인연이지만 축구를 통해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축구가 좋아서 들어왔지만 사람이 좋아서 나가기 싫은 SRC. FC가 계속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직장생활 SRC. FC와 함께 하면 즐거울 것이라는 확신!!!

남녀노소 누구든 환영입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봐요!!!~~

_ 글 SRC 재활치료부 성인운동치료실 SRC 축구단 총무 김영한



본 지면은 SRC를 후원하는 기업의 광고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세계로 연결하는 글로벌 금융파트너!
수출입은행

www.koreaexim.go.kr

SEA-LAND LIBERATOR
WILMINGTON, DEL.

DEWL



모두가 바라는 건강한 세상, 대원제약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세계 40여개국에 수출되는 대원제약의 의약품은 세계적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인류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세기 치료제 전문기업의 역량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의약품 개발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밝게 웃을 수 있는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본 지면은 SRC를 후원하는 기업의 광고입니다



WWW.LOUISQUATORZE.COM FRANCE +33 1 42 72 94 43 CHINA +86 21 6259 9661 KOREA +82 2 549 4851

 LOUIS QUATORZE

보험은 가족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거 같은 우리 딸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네요
우리 딸 결혼할 때, 전 몇 살이 될까요?
다 클 때까지 이 행복 꼭 지켜주고 싶습니다
인생의 무게가 느껴질 때 -

나와 가족을 지키는 보험



상담 및 문의

1566-0100

아시아나, 하노이 주간편 증편 운항

매일 출발하는 야간편부터 가장 일찍 도착하는 주간편까지-
낮에도 밤에도 아시아나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서울(인천)	월/수/금/일	09:45 출발	12:35 도착	▶ 하노이
	매일	19:20 출발	22:10 도착	
	월/수/금/일	14:40 출발	20:35 도착	
	매일	23:30 출발	05:25+1 도착	



dreammaker*

꿈과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주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수길 25 사회복지법인SRC
문의전화 031-760-3678~9 팩스 031-760-3624

본지의 사진과 글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으며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본지의 글과 사진은 글쓴이 개인의 의견이며 SRC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SRC재활병원
- SRC건강증진센터
- SRC베네라이프 요양병원
- SRC요양원
- SRC언어·심리상담센터
- SRC새롬학교
- SRC재활체육관
- SRC보듬터
- SRC서울센터
- SRC직업재활센터
- SRC행복나눔센터
- 서울시립남부장애인복지관